

국토교통부, 극한호우 피해복구 총력·비상대응체계 재정비

- 철도·도로·항공·건설 등 시설물 전반에 대한 확고한 안전체계 정립 -

-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 7월 12일 오후, 지난 집중호우로 인한 철도·도로 분야 시설물의 피해 복구현황과 대응체계 등을 집중 점검하였다.
 - 이번 점검은 최근 기상예보를 훨씬 넘어서는 극한호우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고, 주말부터 복상하는 장마전선으로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, 비상대응태세를 다시 정비하기 위하여 추진하였다.
- 먼저,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철도 분야 시설물을 운영·관리하는 기관장*과 함께 철도분야 안전점검 회의를 개최하여, 피해상황 및 복구현황, 비상대응체계를 점검하였다.
 - * 한국철도공사, 국가철도공단, (주)에스알
 - 이 자리에서 박상우 장관은, “지난 집중호우 시 피해가 발생한 비탈면, 선로 등에 대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즉각 실시하는 한편, 가용 인력과 장비를 필요한 현장에 신속히 투입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이 한 몸처럼 협력체계를 갖출 것”을 지시하였다.
 - 특히, “금번 호우 피해로 현재 열차 운행이 중지된 경북선은 최대한 신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달라”라고 주문하였다.
 - 또한, “호우로 인해 열차 운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각 운행을 중지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하되, 열차 운행시간 변동에 대해서는 코레일톡, 역사 내 안내방송,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신속히 안내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”을 지시하였다.
 - 아울러, “이상기후의 빈도와 강도가 날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는 만큼, 기존의 시설 및 안전기준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개선 조치를 적극 이행해달라”고 당부하였다.
- 이어서, 박 장관은 5개 국토관리청장(서울·원주·부산·대전·익산) 및 도로공사 부사장과 함께 도로분야 안전점검 회의를 개최하여, 피해 및 복구 현황, 비상대응체계를 점검하였다.

- 박 장관은 “집중호우로 인한 지하차도 침수, 비탈면 붕괴 등은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하차도·비탈면 등 취약 구간을 반복해서 점검하되, 형식적 점검이 되지 않도록 피해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실질적 점검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달라”고 당부하였다.
- 특히, 5개 국토관리청장에게는 “집중호우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한 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줄 것”을 주문하면서,
 - “이번 주말에도 비상대응태세를 유지하면서, 취약 현장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할 것”을 지시하였다.
- 한편, 국토교통부는 철도·도로에 이어 7월 14일에도 항공·건설·주택까지 포괄하여 국토교통분야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 회의를 개최하고, 분야별 피해 및 복구 현황, 비상대응체계를 종합 점검할 계획이다.

2024. 7. 12.

국토교통부 대변인